

# 선두 잡고 파죽지세... 광주FC, 2위 넘본다



광주FC가 '1위' 울산현대를 꺾고 2위 고지를 눈 앞에 뒀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파이널A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9월 3일 원정길에서 이견희의 선제골로 8년 만에 울산전 승리(2-0)를 장식했던 광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울산에 연승을 거뒀다.

이번에도 이견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후반 13분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이견희는 0-0으로 맞선 후반 42분 이희균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 승리로 '승점 57'을 만든 광주는 인천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2위 포항스틸러스(승점 59)를 2점 차로 추격하게 됐다.

## 파이널A 1-0 울산현대 꺾어 2위 포항 승점 2점 차 추격 이정호 감독 "다음 경기 잘 준비"

광주의 수문장 이준과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쇼가 이어지면서 팽팽한 '0'의 흐름이 계속됐다. 전반 7분 김한길, 전반 18분 허술이 원발 슈팅으로 울산 골대를 공략했지만 조현우가 몸을 날려 공을 막아냈다. 전반 28분 아른의 헤더도 조현우의 좋은 수비에 골대를 넘지 못했다.

전반 중반에는 울산 엄원상과 이정용의 매서운 슈팅이 나왔지만,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광주도 막판 공세를 벌였다. 전반 44분 토마스의 슈팅이 옆 그물을 때렸고, 전반 종료 직전에 나온 엄지성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위로 뒀다. 후반 5분에도

엄지성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매서운 슈팅이 조현우에 막혔다.

이준도 좋은 수비로 조현우에 맞섰다.

후반 13분 김영권의 대포알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이준이 이를 저지했다.

후반 24분 코너킥 상황에서도 김기희의 헤더를 저지한 이준, 공이 방향을 바꿔 광주 골대 구석으로 향했지만 엄지성이 골라인 넘기 전에 공을 걷어냈다.

이준은 후반 34분에도 울산 바코의 슈팅을 막으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그리고 이견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42분 이희균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이견희가 골대 왼쪽에서 조현우를 마주하고 슈팅을 시도했다. 이견희의 왼발이 조현우를 뚫으면서 마침내 '0'의 균형이 깨졌다.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와 울산은 마치

막까지 뜨거운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0, 광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울산 공세를 완벽하게 차단한 이준은 "앞으로 4경기인데 3경기 더 무실점하고 싶다. 개인적인 목표로 3경기 더 하면 우리가 목표한 위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다 열심히 무실점 승리를 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날 광주 골대 앞에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인 엄지성은 "선수들이 위험상황에서 다들 잘 막아준 것 같다. 많지 않은 찬스를 살려서 골이 들어간 것 같다"며 "골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쉽다. 다음 경기에서는 골 넣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결승골 주인공 이견희는 "뒤에 선수를 보고 움직였는데 희극이 나를 보고 패스를 넣었다. 처음에는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넣고 봐야

다고 생각했다. 타이밍이 좋게 와서 방향만 바뀌보자고 했는데 골이 들어갔다. 기분이 좋다"며 "중요한 경기였다. 힘든 경기였는데 다들 잘해줘서 이겼다. 기분 좋고 의미가 있다. 다들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다. 나도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더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지휘한 이정호 감독도 '2위'를 언급했다.

이정호 감독은 "경기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경기장에 온 팬분들하고 경기 잘 준비한 선수들 덕분에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것 같다. 기분 좋은 경기였다. 실점하지 않으면 찬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찬스가 와서 잘 마무리했다"며 "선수들에게 '2위까지 도달해보자, 포항을 압박해보자'고 했는데 이 경기로 포항을 압박한 것 같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그래 이 맛이야"... 이민지, 한국서 LPGA 첫 우승  
교포 선수 이민지(호주)가 22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밸리 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연장 첫 홀인 18번 홀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지은 후 동료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KIA 타이거즈 '2023 호랑이 가족 한마당'

28일 챔피언스 필드  
팬 1000명 초청

KIA 타이거즈가 '2023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열고 팬들과 함께 올 시즌을 마무리한다.

KIA는 28일 오후 1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팬 1000명을 초청해 '2023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KIA 선수단 전원이 참석해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게 된다.

선수들은 숨겨진 끼를 선보이는 무대도 마련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볼펜 및 티셔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여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은 ▲선수단 사진전 ▲팬 사인회 ▲시즌 영상 상영 ▲선수단 감사 인사 ▲신인선수 및 군 전역 선수 소개 ▲무등산 보호 기금 전달식 ▲시즌 리부 토크쇼 ▲레크리에이션 ▲릴스 콘테스트 ▲선수들과 팬이 함께하는 응원전 ▲경품 추첨 ▲선수단-팬 하이파이브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맺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식전 행사로 이달 초 SNS 공모전으로 진행된 '무등에서 본 챔피언, 챔피언에서 본 무등 사진전' 입상작이 전시된다.

공식 행사에서는 선수들이 기부 협약을 맺고 적



립한 무등산보호기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1도루당 20만원' 기부를 약속했던 내야수 김도영은 올 시즌 25개의 도루를 성공하면서 500만원을 전달한다. '1승당 30만원'을 약속했던 투수 윤영철은 8승을 거둬, 240만원을 기부한다.

행사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24일 정오에 행사 입장 티켓 예매가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KIA 타이거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1명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우천시에는 3층 복도(콘코스)에서 사인회, 사진전, 선수단 하이파이브 등으로 행사가 축소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AI페퍼스, 수비 '흔들'... 흥국생명에 0-3 패배

### 리시브 효율 22.22% 그쳐

연패 없이 시즌을 출발한 AI페퍼스가 수비 불안에 잠겨있지 못하면서 승점을 연달아 가져가지는 못했다.

광주 프로야구단인 AI페퍼스 소속 AI페퍼스는 22일 인천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원정 경기에서 0-3(19-25 24-26 27-29)으로 완패했다.

페퍼스 야스민이 이날 28득점을 퍼부으며 세트마다 '한 점 차' 접전을 벌였지만 2-3세트 역전을 허용하며 한 세트도 얻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스파이크, 엘레나의 후위 공격으로 2연속 점수를 내며 1세트 문을 열었다.

1세트에서 엘레나는 블로킹 1득점을 포함해 10득점을 내며 페퍼스는 결국 1세트를 19-25로 내줬다.

필립스와 이한비, 야스민, 박은서는 1세트에서 서브 범실을 하며 자멸했다.

2세트는 이한비가 상대의 바깥공을 공략해 6-5 역전에 성공한 뒤 이고은의 서브 득점까지 가져가면서 중반까지 분위기를 주도했다. 여기에 이한비가

김미연의 속공을 막아내며 15점을 선취했다.

하지만 2세트 막판 교체된 김수지가 2연속 서브 득점에 성공하면서 페퍼스의 승기를 가로챘다. 이날 김수지는 서브 성공 250개의 주인공이 됐다.

3세트에서는 필립스가 블로킹 2득점에 성공하면서 20점을 먼저 찍었지만, 엘레나와 김연경의 속공에 수비가 무너졌다.

김연경이 매치 포인트를 먼저 쌓았지만, 야스민이 반격하며 3세트는 듀스 접전을 거듭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필립스의 공이 밖으로 나가면서 흥국생명의 승리로 마무리했다.

이날 페퍼스는 야스민(28점)과 박정아(9점), 필립스(9점)가 모두 합쳐 46점을 만들어내는 등 상대 팀보다 높은 공격 성공률(42.99%)을 나타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짧은 서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대 팀 리시브 효율(29.69%)에 크게 못 미치는 22.22%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오는 27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으로 GS칼텍스를 불러와 홈 2연승을 노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I페퍼스 야스민이 22일 인천에서 열린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원정 경기에서 점수를 낸 뒤 포효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여자축구, 사상 첫 올림픽 진출 도전

26일 아시아 2차 예선 시작  
북한·중국·태국과 '죽음의 조'

롤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6일부터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한다.

2차 예선은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 한국은 중국(15위), 태국(46위), 북한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A조는 호주(11위), 대만(38위), 필리핀(44위), 이란(63위)이 모였고 C조는 일본(8위), 베트남(34위), 우즈베키스탄(50위), 인도(61위)다.

각 조 1위가 4강에 직행하고, 조 2위 국가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이후 4강 토너먼트에서 이긴 2개 나라가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는 한국 여자축구는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힘겨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이외에는 국제 경기를 치르지 않아 세계 랭킹이 없는 북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조는 호주, C조는 일본이 비교적 손쉽게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조는 한국, 중국, 북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6일 태국과 1차전을 치르는 한국은 이어 29일 북한, 11월 1일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로서는 올해에만 세 번째 도전이다.

8월 FIFA 여자 월드컵에 사상 첫 8강을 목표로 호기롭게 나선 벨호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아시안게임이다'를 외치며 9월 중국 항저우에 입성했지만 8강에서 북한에 1-4로 완패해 4강에도 들지 못했다.

한국 여자축구가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25년 만이었다.

다시 '이제는 올림픽이다'를 외치며 중국으로 향한 벨호로서는 이번 올림픽 예선이 명예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4월 벨 감독과 계약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으나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 사실상 2024년에는 나갈 대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예선에서 4강에 오른 팀들이 겨루는 최종 예선 4강 토너먼트는 2024년 2월에 펼쳐진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동아시아컵 1-0 승리 이후 18년간 13번 만나 2무 11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등 상대 전적 1승 3무 16패, 일방적인 열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소연(수원FC), 2007년 6월생 신에 케이지 유진 페어 등의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16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NFC)에 소집돼 훈련했으며 23일 오후 중국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